

병 원 탐 방

강동 성심병원 물리치료실

날릴듯 흐트러진 새털구름을 담고 있는, 파란 하늘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하얀 건물은 15층 높이의 강동성심병원이었다.

86년 10월에 개원을 한 때문인지 정문에 들어서자 현기증이 나도록 번들거리는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내가 가고자 하는 물리치료실을 살펴보니 지하 1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환영한다는 듯이 활짝 열려진 곳에 들어서자 분산한 움직임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정갈함과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었다.

운동치료실에서 환자와 一心이 되서 치료하시는 선생님의 열의에 구경(?)은 자의 미안함을 느끼며 살짝 엿본 곳은 수치료실, 전기치료실, 그리고 근전도실이 이었다. 특히 전기치료실에 있는 치료기들은 아시안게임시 실제 사용되었던 최신 장비들로에 환자 치료에 큰 몫을 하고 있었다.

병원 건물 현수막에 쓰여있는 특수클리닉에 대해 실장님께 여쭙어보니 심장병 환자, 항문, 소아과 환자에 대한 전문클리닉으로서 또한 스포츠클리닉으로서 750병상의 초현대식 시설과 더불어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우수한 의료진으로 병원에서 내걸고 있는 “환자 최우선 주의”의 마음으로 항상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하셨다.

앞으로 물리치료실도 각 파트별로 전문성을 살려 물리치료를 실시하려고 지금 현재도 한 계단 준비 중이라고 한다. 환자 수에 비해 선생님 세분으로 부족하지만 각 초진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서 각 선생님들의 치료 계획 속에 철저히 치료하려고 항상 공부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conference를 통해 환자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환자들의 빠른 쾌유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때로는 치유 환자들이 계속 치료받고자 우기는(?) 바람에 즐거운 비명과 함께 당황하면서 말릴정도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신다.

너무 많은 환자들을 감당해야하지만 물리치료사로서 대답해야 할 것은 정성껏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환자들이 가족처럼 서로를 걱정해 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인 피로를 잊을수 있다고 한다.

1년 후에 다가올 88올림픽 지정병원으로 물리치료실에서 담당해야 할 몫으로 바쁠 것 같으며 실장님과 두 분의 선생님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본인의 사업(?)들은 언제 하나며 총각 처녀의 푸념으로 장난스레 웃으신다. 본 기자도 “따뜻한 미소는 닫힌 마음을 엿니다”라고 물리치료에 곱게 붙여진 병원 표어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열려졌던 마음들을 뒤로하고 미소를 띄우며 병원 문을 나섰다.

(취재부장 : 이정근)

